

미국 서부 로드 트립

# UTAH. MONTANA. IDAHO

이후에 수백 km를 달려야 하는 일주일간의 미국 서부 로드 트립 중 비슷한 풍경은 단 한 장면도 없었다.

유타주의 거대한 호수를 끼고 아이다호주를 거쳐 몬태나주의 세계적인 국립공원에 이르기까지 거칠고 험난한 시가지대의 등장한 절곡, 미로 같은 개곡이 저마다 다른 시간과 이야기를 품은 채 다가왔다. 평년설로 뒤덮인 고산 아래 초원에서는 바이슨과 엘크가 풀을 뜯고, 깊고 맑은 호수 주변에는 카우보이가 있듯만 산골 마을 육상 풍경이 펼쳐진다. 시골 손질이 도처하듯을 것 같지 않은 아주 깊숙한 곳에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유구한 문화와 전통의 흔적이 화석처럼 남아 있었다.

백대년 이상 살아온 마을에서 살고 있는 이들은, 그들의 삶은 여전히 전통과 현대의 경계에 서 있다.

이들은 여전히 전통과 현대의 경계에 서 있다. 그들은 여전히 전통과 현대의 경계에 서 있다.

이들은 여전히 전통과 현대의 경계에 서 있다. 그들은 여전히 전통과 현대의 경계에 서 있다.

이들은 여전히 전통과 현대의 경계에 서 있다. 그들은 여전히 전통과 현대의 경계에 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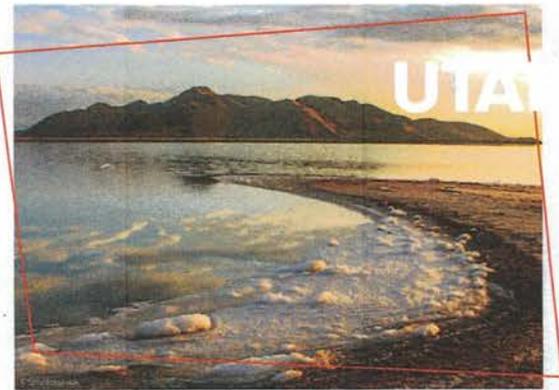
# SOUTHWEST AMERICA



### TRAVEL TIP

**렌터카 어떻게 고르고 예약할까?**

로드 트립에서 자동차는 여행의 질과 안전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1~2명이라면 일반 승용차도 상관없지만 가족 단위 로드 트립을 계획한다면 미니밴을 이용하는 편이 좋다. 7~8인승의 미니밴은 캠핑장까지 대형 트레일러를 쥘 수 있는 것. 일부는 '캠핑'이 하는 거대한 미니밴을 렌트하기도 한다. 캠핑에는 잡이식 의자와 테이블뿐만 아니라 싱크와 수납장 등이 실체 여행이 한결 편리하다. RV라 하는 캠핑카도 미국 로드 트립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미국 전역에 RV 캠프 그라운드들이 잘 갖춰져 있어 마누는 데 어려움이 없다. 가장 유명한 렌터카 업체는 단연 헤르츠(Hertz), 제인웨이 총용하고 긴급 상황 시 쉽고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신노도가 가장 높다. 높은 요금이지만 워싱턴주 전역적인 네트워킹을 갖고 있는 아비스(Avis)나 알리아(Alamo)와 비교한 뒤 지원된 가격대를 선택하자. 익스피디아(www.expedia.com)나 첵티켓(www.cheaptickets.com)을 이용해 관련 종합 예약 사이트에서 예약하면 된다.



### 유타 UTAH

유타는 유럽인이 아메리카 대륙을 탐험하기 전, 과거 그곳에 거주한 유트족의 언어로 '산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북부의 로건 캐니언과 워셔치산맥, 남쪽의 레드록캐니언 지대에 이르기까지 높은 산에 둘러싸인 유타에 걸맞은 이름이다. 아메리카 대륙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로키산맥 서편, 태평양도 평균 1860m인 고산 지대에 자리하고 있다. 총면적의 60% 이상이 공유지로 지정되어 있다. 그중 암벽과 계곡이 오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자연의 아름다움은 원형국자인 브라이스캐니언,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샌드스톤 아치가 모여 있는 아치스, 태고의 자연이 그대로 보존된 캐니언랜드, 바다의 알초라 불리는 캐피톨리프 등 일명 '마이트리 파이브(Mighty Five)'라 하는 국립공원 5곳이 유명하다. 유타주의 렌드레이크(Salt Lake)는 길이가 112km에 이르고 너비는 48km나 된다. 호숫가에 두꺼운 소금 층이 얼음처럼 덮여 있어 독특한 장관을 이루는 곳. 3억 5000만 년 전부터 바닷물이 들락거리며 수백m 두께의 소금 층을 형성했고, 그 뒤에 다시 수천만년간 두꺼운 흙먼지가 쌓였다. 그 두께에 눌린 소금 층이 지상으로 솟아오르고 거기에 다시 흙먼지가 쌓이기를 반복, 오늘날의 기묘한 모양을 이루었다. 주도는 솔트레이크시터. 모로코의 본거지로 시인 대부분이 모로코교를 믿는다.

### 몬태나 MONTANA

러닝이로 '산악자랑'이라는 뜻. 동쪽은 노스다코타와 사우스다코타주, 남쪽은 와이오밍과 아이다호주와 접하고 있다. 서부의 약 40%는 로키산맥, 북서부에는 얼음에 덮인 산악과 호수가 아름다운 글레이시 국립공원이 자리하고 있다. 평원의 평균 해발고도가 500m 이상이라 시원한 편. 열과 보리 산출량이 미국 내 3위를 차지한다. 호밀과 귀리, 아사시, 사탕무, 감자 등의 농작물 생산량이 많고, 목축도 활발한 편. 원주민은 인디언이었으나 1742년 프랑스인 모리산 인 쇄아른 후부터 탐험과 개발이 진행되면서 현재는 약 20만 명의 인디언이 보호 지구에 살고 있다. 1850년대의 골드러시로 인구가 증가했고, 1864년에 41번째 주가 되었다.

### 아이다호 IDAHO

로키산맥의 주맥과 지맥이 대부분을 차지해 경지가 적다. 그나마 스노우리프강 연안에 경지가 이어져 그 주변으로 거주지와 관광지가 모여 있다. 1860년 북부 피어스에서 글레이시 개발되어 골드러시를 맞았고, 그 후 목축업과 농업, 임업 등이 번성해 발달했다. 1890년에 이르러서는 미국의 43번째 주가 되었다. 유타나 몬태나주와 마찬가지로 대자연의 아름다움이 풍부하다. 스노우리프강의 정대한 헬스캐니언과 달 프린트와 호숫가 휴식구가 모여 있는 크레이티스오브 더 문 등 국가 지정 기념지로 유명한 곳. 웅장하고 독특한 형태의 계곡이 많고, 각지에 인디언 보호 지구가 있어 볼거리가 많다. 최대 도시는 주도인 보이시. 아이다호폴스나 포카헬로 등의 도시가 관광지로서 사랑받고 있다.

